

잭에게 딱 맞는 일

마고 메이와 애비 라킨스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


잭은 뛰고, 점프하고, 노는 것을 좋아해요.
잭은 감각 처리 장애가 있어요.



이런 잭이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
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.



잭은 매일 오후에 똑같은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아요.



매일 밤 자기 전에는 똑같은 이야기책을 읽고요.



그리고 일요일마다 초등학교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요.



어느 날 교회에서 모든 아이가 예배당에서 초등학교
발표를 연습했어요. 평소와 다른 일이었지요!



잭은 다른 것을 싫어해요.



엄마는 잭을 맨 앞줄에 서게 하시고
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셨어요.



잭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기 위해 친구가 그 옆에 섰어요.



선생님은 주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헤드폰을
주셨어요. 하지만 잭은 여전히 속상했어요.



그때 음악 책임자와 초등학교 회장님에게
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



잭은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을
맡았어요! 잭은 하나님 아버지의
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.

출처: 나벨라 라킨스

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